

아 테

○ 美, 인도·파키스탄 긴장완화 협력촉구

- 5.1 언론은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, 美 국무부가 양국의 지도자들과 연락하여 긴장 완화를 위해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보도

※ 「마코 루비오」 美 국무부장은 파키스탄에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를 촉구했으며, 인도에는 수위 높은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발표

○ 러시아, 인도-파키스탄 갈등 속 테러와의 싸움에 나선 인도 지지 표명

- 5.6 언론은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테러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, 러시아 「푸틴」 대통령이 테러범과 지원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면, 인도의 테러와의 싸움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보도

※ 한편, 파키스탄은 UN에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촉구

중 동

○ 시리아, 혁명 동지에서 계류이 된 외국인 지하디스트에 고심

- 5.1 시리아 내전에서 「바샤르 알아사드」 정권 축출에 힘을 보탠 ‘외국인 혁명 동지’들이 이제는 과도정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으며, 미국은 시리아 과도정부에 이들과의 관계 절연을 요구하였다고 보도

※ 시리아 과도정부의 서방과의 관계 개선 등 ‘정상국가 전환’과 내전을 ‘이슬람 성전’으로 여기는 외국인 지하디스트간 차이가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부언

아프리카

○ 케냐, 야당 의원 괴한총격으로 피격사망

- 5.1 언론은 케냐의 야당 국회의원 「찰스 웨레」 의원이 오토바이를 탄 괴한 2명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였으며, 경찰에 따르면 웨레 의원을 표적으로 한 계획적 살인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고 발표

※ 케냐에서는 지난해 야당의 지원을 받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수십명이 사망한 바 있으며, 이에 「루토」 케냐 대통령은 야당 인사들을 내각에 임명하여 정치 협정을 체결

유럽

○ 英, 대테러작전으로 8명 체포

- 5.5 언론은 英 경찰이 '특정 시설'을 겨냥한 불특정 대상 테러 모의 혐의로 이란인 4명을 포함한 5명을 체포하여 조사 중이며 별도의 작전으로 이란 국적 남성 3명도 체포했다고 보도

※ 英 정부는 同 작전을 “수년 만에 가장 큰 국가 위협에 대한 대테러작전”이라고 규정

○ 유럽, SNS·AI 기술 발전으로 '청소년 테러범' 증가

- 5.5 언론은 최근 유럽에서 체포된 테러 혐의자 중 상당수가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이는 SNS와 AI 기술의 정교한 발전으로 인해 10대들 사이에서 극단주의 정치 선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

※ 또한, AI와 알고리즘이 테러단체 요원 선발 업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부언

○ 英, '가성비' 무선 주파수 지향성 에너지 무기 실전 배치 눈앞

- 5.7 언론은 최근 영국군이 성능 테스트에 성공한 무선 주파수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영국 등에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도도 3.5km 밖의 드론을 레이저로 격추하는데 성공했다 보도

※ 언론은 저가의 자폭 드론 요격을 위해 수백만 달러 미사일이나 로켓에 의존하는 기존 대공 체계는 한계가 있다고 부언

미주

○ 駐한 美대사관, 미국 입국을 위한 철저한 비자신청 준비 당부

- 5.6 언론은 駐한 美대사관이 강화된 이민정책에 따라 모든 여행객은 대테러 데이터베이스 검토를 포함한 보안 심사 후 보안 우려 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비자가 발급된다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고 보도

케냐, 나이로비 버스 폭탄테러

- '14.5.4 케냐 수도 나이로비 북동쪽 티카 도로(Thika Road)에서 45인승 버스 2대가 1km 거리를 두고 연쇄 폭발, 사망 3명·부상 62명
 - 당시 버스 안에는 출·퇴근을 하던 시민들로 가득 찼으며, 피해자 중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로 확인
- 케냐 국가 재난 작전 센터(Kenya National Disaster Operation Center)는 '버스 측면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고, 출입문과 창문이 모두 날아갔다'며 외부에서 강력한 급조폭발물(IED)이 던져졌을 가능성을 제기
 - * '14.5.3 몸바사에서도 버스 안으로 수류탄이 투척 되어 4명 사망·15명 부상
- 사건 이후 테러를 주도했다고 나서는 단체는 없었으나, 케냐 정부는 알카에다와 연결된 알샤바브를 테러 배후로 지목하면서 '악랄하고 비열한 행동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쫓고 있다'는 성명 발표

테러 상식

「빈 라덴」 사살 작전(넵툰 스피어스 작전)

- (작전명) Operation Neptune Spear(넵툰 스피어스 작전)
 - (날 짜) 2011년 5월 2일
 - (위 치) 파키스탄 아보타바드
 - (수행부대) 미 해군 SEAL Team 6(DEVGRU), CIA, 160th SOAR(Night Stalkers)
 - (작전배경) 미국은 9·11 테러 후 '테러와의 전쟁'을 내세워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해 장악했으나, 알카에다* 수괴 「빈 라덴」 사살에는 실패, 美 정보당국의 오랜 첩보활동 끝에 파키스탄 內 「빈 라덴」 거주 정보 입수
 - * 알카에다(AQ) 테러단체 지정: UN('10.10), 미국('99.10), 캐나다('02.7) 등
 - (작전결과) 「오사마 빈 라덴」 사살 및 시신 확보, 적 사망 5명(빈 라덴 포함) SEAL 팀 피해 없음, 美의 대테러 승리 상징
- ⇒ 장기 첩보활동 및 기술 기반 감시의 결합과 대테러 특수작전부대의 성공적인 임무완수 사례로, 「빈 라덴」 사망 이후 알카에다는 각국 지부 중심으로 독자활동으로 전환